

큰스님 수행한담

“좋은 생각 많이하고

이 두스님 <청주 관음사 조실>



- 1929년 강원도 김화 생
- 1951년 금오스님을 은사로 출가
- 동화사 강원 대교과, 성군관대 졸업
- 1971년 감사 주지
- 1978년 법주사 주지
- 1991년 인도 팔리대 철학박사
- 현 해동불교대학장
- 현 청주 관음사에 주석

“참선은 나를 바로 아는 길 수백만명의 남을 이겨도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헛일”

마음의 싸움인데 잘 것 다 자고 졸 것 다 졸면서 어떻게 용맹정진한다고 하겠느냐며 몽둥이로 쳤습니다. 내가 좋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얀거울 해제할 때 일입니다. 스님은 선방이 아닌 별채에서 경전을 읽자며 나를 불렀습니다. 처음 대하는 경전이었지만 받자마자 그 책을 풀풀 읽어내려갔더니 스님은 깜짝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한문을 배웠던 것이 도움이 된 것이었어. 그러나 금오스님은 “한문실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불교 교리를 알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이 말을 은사스님이 들으면 “모호한 말로 필선(筆禪)도 선이라고 치부하는구나”며 대갈일성이 떨어질 판입니다.

스님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대중의 삶을 보아야 합니다. 젊은 시절 한창 수행의 감로를 기꺼워할 때 좋은 인연을 만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법명은 기억나지 않지만 용현사 조실스님의 사자후에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입니다. 스님은 “생사가 없으니 생사가 아닌 것이 없는 것이다. 부처님 말씀에 세계는 일합상(一合相)인데 일합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합상이다 라고 한 것은 어떤 것인가? … 불국정토가 아닌 곳이 어디 있느냐. 깨치지 못하면 극락도 사바가 되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법문이었지요. 해탈할 모든 남자들이 산문을 떠나자고. 수행스님도 떠나버린 용현사 뜨락에서 나는 육도만행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효봉선사는 입산 전에 영장수로 만행을 했고 금오스님은 전주에서 걸인만행을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범지품(梵志品) ②

非族結髮 비족결발
 名爲梵志 명위법지
 誠行法行 성행법행
 酒白則賢 청백족현

머리를 한데 모아 묶었다 하여 그를 법지라 하지 않나니 진실한 행 법다운 행이 맑고 깨끗해야 곧 어진이 이다

飾髮無懸 식발무혜
 草衣何施 초의하시
 內不雜者 내불리자
 外捨何憂 외사하의

머리를 꾸며도 지혜 없으면 초의 걸친들 배꽃게 무엇이랴 마음이 집착을 여의지 못한 이 밖으로 버린들 무슨 이익 있으랴

被服弊惡 피복폐악
 躬承法行 공승법행

“마음이 집착을 여의지 못한 이 밖으로 버린들 무슨 이익 있으랴”

閑居思惟 한거사유
 是謂梵志 시위법지

헤지고 거친 옷을 입었어도 몸소 법다운 행을 받들고 마음 한가히 법을 생각하는 이 이를 법지라 한다

佛不教彼 불불교피
 讚口自稱 찬이자칭
 如誦不妄 여체불망
 乃爲梵志 내위법지

부처님께서 저들에게 가르치시길 스스로 자기를 뽐내라 하지 않으셨나니

진리에 알맞아 망녕되지 않은 이 그를 법지라 한다

絕諸可欲 절제가욕
 不淫其志 불음기지
 委棄放蕩 위기욕수
 是謂梵志 시위법지

모든 하고자 하는 것 끊어서 그 뜻에 빠지지 않고 탐욕을 모두 버린 이

이를 법지라 한다

斷生死河 단생사하
 能忍起度 능인기도
 自覺出塵 자각출참
 是謂梵志 시위법지

생사의 흐름을 끊고 능히 욕망을 참아내 제도하려고 스스로 깨우쳐 구덩이 벗어난 이 이를 법지라 한다

見罵見擊 견매견격
 默受不怒 묵수불노
 有忍耐力 유인유력
 是謂梵志 시위법지

꾸짖음을 듣고 얻어 맞더라도 묵묵히 받아들여 성내지 않아 그 욕됨을 참는 힘 있는 이 이를 법지라 한다

若見侵欺 약견침기
 但守守戒 단수수계
 端身自調 단신자조

若見侵欺 약견침기
 但守守戒 단수수계
 端身自調 단신자조

是謂梵志 시위법지

만약 남의 해침과 속임을 당해도 다만 계율을 지키며 몸을 단정히 하고 마음 조상하는 이 이를 법지라 한다

心棄惡法 심기악법
 如蛇脫皮 여사탈피
 不爲欲汚 불위욕오
 是謂梵志 시위법지

마음으로 나쁜 법 버리기를 뱀이 껍질 벗듯이 하여 욕심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이 이를 법지라 한다

覺生爲苦 각생위고
 從是滅意 종시멸의
 能下重擔 능하중담
 是謂梵志 시위법지

생생이 괴롭고 이로부터 멸의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 산사의 생활은 예불과 식사시간 외에는 간섭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로하게 지내던중 어느날 스님 한 분이 나를 부른다고 사자후가 찾아왔습니다. 안내를 받으며 방에 들어서자 “이 사람이. 내가 나를 모르던 인생은 허망한 것이야. 수백만명의 남을 이겨도 자기 자신 한명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야. 불교에서의 참선은 나를 이기고 참다운 나를 찾는 일인가. 남을 이기는 공부를 할까고, 자신을 이기는 공부를 할까고”라고 물었습니다.

삼이란 곧 괴로움임을 깨닫고 그에 따라 온갖 욕망 없애어 능히 무거운 짐 내려 놓는 이 이를 법지라 한다

龍眼

해마다 해마다 앞산이 푸르는 봄을 보면서 입산한지 반세기 속대머리로 산길을 찾아 오던 길은 아득한 추상(追想)

문득 지워지는 산하여 인간이 삶에 버리지 못하는게 욕심이나 탐욕은 허망하고 부질없는 것이다 내 아직은 선선(禪仙)은 아니언만 입산은 잘했다는 생각에 발을 갈고 추수하며 한 해를 보내느니

인려(雁旅) 끝에 가을잎 떨어지고 눈덮인 날 이숙(離俗)산방에서 잠을 지새우는 모미에

삼의 뜻이 청간(淸間)하여라 밤이 낮인 듯 낮이 밤인 듯 창밖에 그윽한 은월이 흐르고

내 나이 19살때 전에 인연있던 선생님의 추천으로 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년고생을 많이 한 때 문인지 피로한 증세가 자주 나타났습니다. 의사는 별다른 병은 없지만 내년 사관학교에 가려면 요양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룡사 기슭에 있는 갑사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산문에 들어서게 된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산사에서의 첫날 많은 생각으로 새벽을 맞은 나는 호기심 어린 눈길로 예불을 지켜보다가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불 참석 횟수가 늘어나면서 마음의 수양이란 환경의 선택이나 배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수양이 깊어지면 잡념이 없어지고 잡념이 없어지면 환경이 어떠한든 무관하게 마음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사의 생활은 예불과 식사시간 외에는 간섭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로하게 지내던중 어느날 스님 한 분이 나를 부른다고 사자후가 찾아왔습니다. 안내를 받으며 방에 들어서자 “이 사람이. 내가 나를 모르던 인생은 허망한 것이야. 수백만명의 남을 이겨도 자기 자신 한명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야. 불교에서의 참선은 나를 이기고 참다운 나를 찾는 일인가. 남을 이기는 공부를 할까고, 자신을 이기는 공부를 할까고”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불교의 참선이란 남을 알고 남을 이기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고 나와 싸우자는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51년 금오스님을 만나 출가를

순수한 경만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筆 최초로 공개.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그림, 龍자그림 (수백과 처단) 특별보시

정품으로 배우는 사경예술 실습, 사군자, 달마도, 용자그림, 전수자 수장생모질. (홍신도 가능)

사업실책,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담당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 (02)242-0331, 242-0255 (04)216-0307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경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文化藝術院 雲藏法師禪筆硏究會

호스피스 전문인 양성교육 안내

I AMITA HOSPICE 교육에 관하여...

어디에서? 충북, 청주 대한불교 조계종 청주자원봉사센터 교육원

언제부터? 1998년 7월 2일 개강하여 7월 30일 종강식

준비물 소명함판사진 4장, 필기도구 꼭 지참

교육내용 7월 2일부터 매주 수, 목, 오전 10시부터 교육

교육대상자 포교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스님, 법사님 그리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일반 불자들에게

☎ 교육후, 대한불교 조계종 자원봉사 단원증과 수료증 발급!

문의 연락처 ☎ 0431) 54-2258/54-1457

대한불교조계종 자원봉사 청주·청원 불자연합 교육센터 원장 여현정 합장

신비한 우주 에너지(빛) 발생장치, 명상용 수정 피라미트 히란야!

피라미트 모형

피라미트 모형 <특허청 의장특허 등록 NO.204454> 「의료용 '氣' 발생기」 의장등록번호 NO.1822, 1823, 1824

우주문명과 피라미트 히란야 문덕 출판사

한국 피라미트 히란야 체질개선 연구회 부설 문덕출판사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305-1 보라B/D 303호 TEL. 792-0960, 0966